다양한 양육자 간의 협력

3편

조부모님과의 양육,
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?



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

혹시 조부모님이 매일 아이를 돌봐주고 계신가요?

?

그렇다면 아이를 매일 봐주시는
조부모님은 **어떤 존재**일까요?

A. 아이를 돌봐주는
양육 보조자

B. 오랜 경험을 가진
양육 조언자

C. 필요할 때 도와주는
양육 조력자

D. 함께 양육의 방향을
만들어 가는
공동 양육자

현대사회에서 조부모님은
더 이상 '보조자'가 아닙니다.
아이의 일상과 정서에 깊이 관여하는
'공동 양육자'입니다.

하지만...
세대 차이로 양육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.
중요한 건 '누가 맞는가'보다,
'어떻게 함께 맞춰갈지'를 고민하는 것입니다.

여기서 잠깐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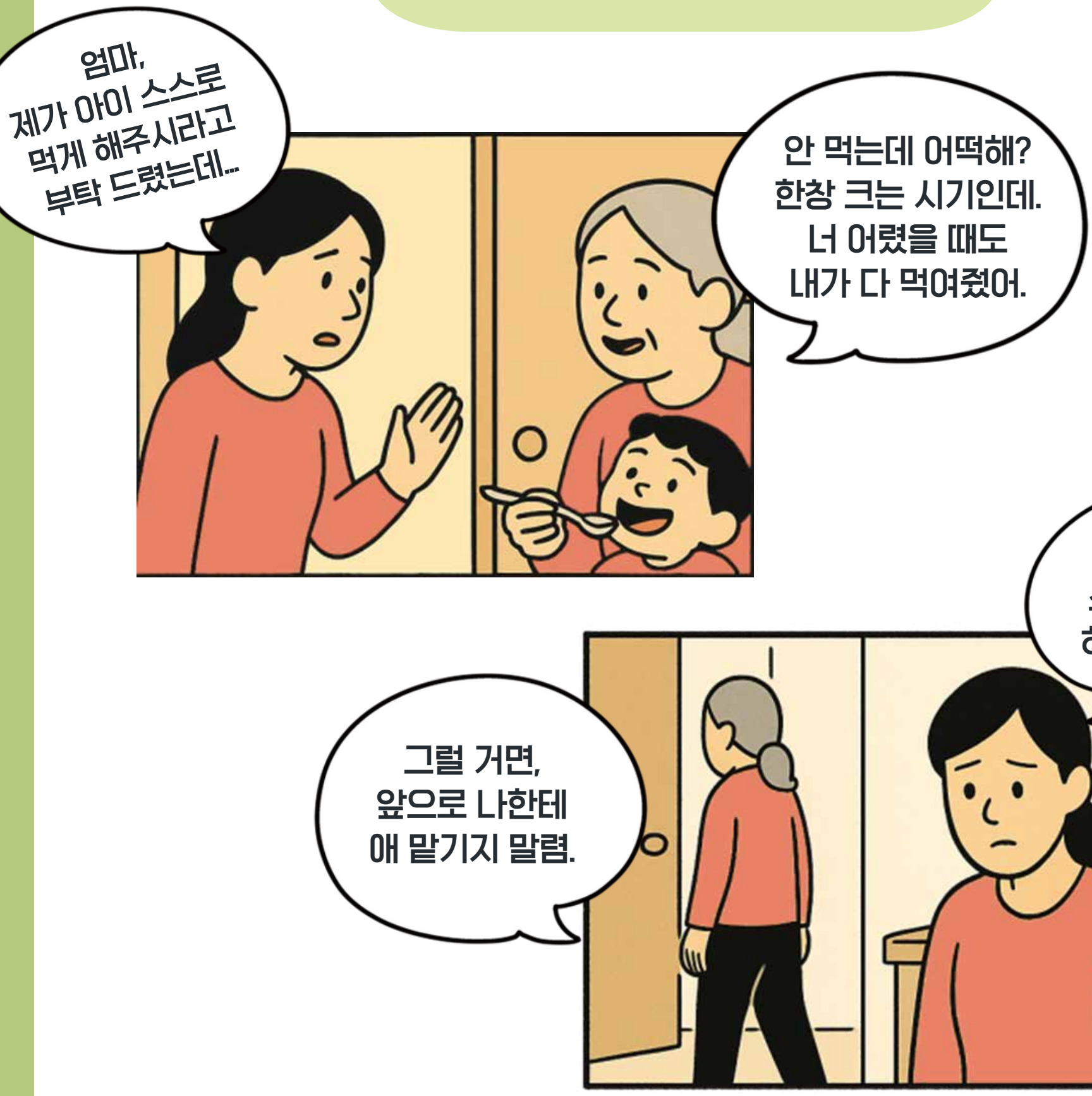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 서로 다른 양육 방식은 무엇인가요?

"이건 할머니한테 말할 거야"처럼
아이가 상황에 따라 양육자를 **구분**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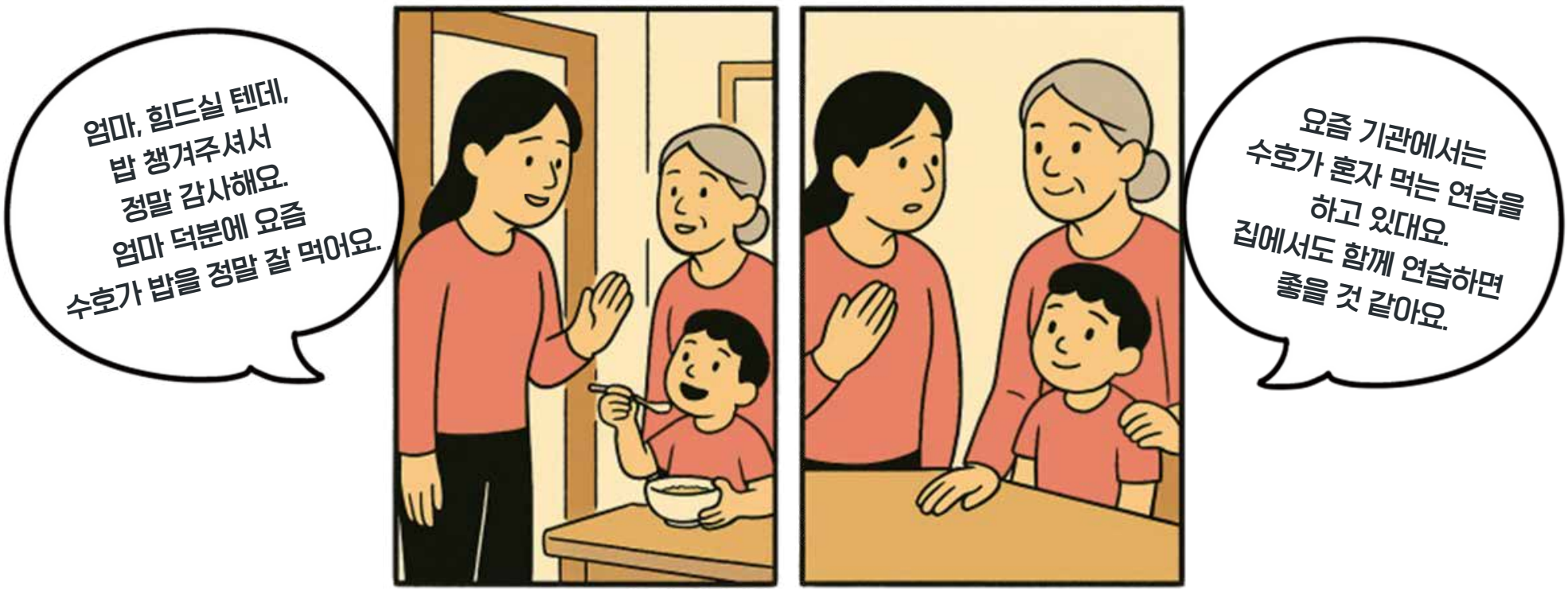
아이가 조부모인지 부모인지에 따라 눈치를 보고,
다르게 행동해요.

사례를 통해 이해를 더 해볼까요?

1. 양육 방식의 차이 조율하기



1. 양육 방식의 차이 조율하기



감사로 시작하기,
방식보다 **마음 먼저**!

다름을
인정하기

부드럽게
방식 제안하기

주목!

조부모와 양육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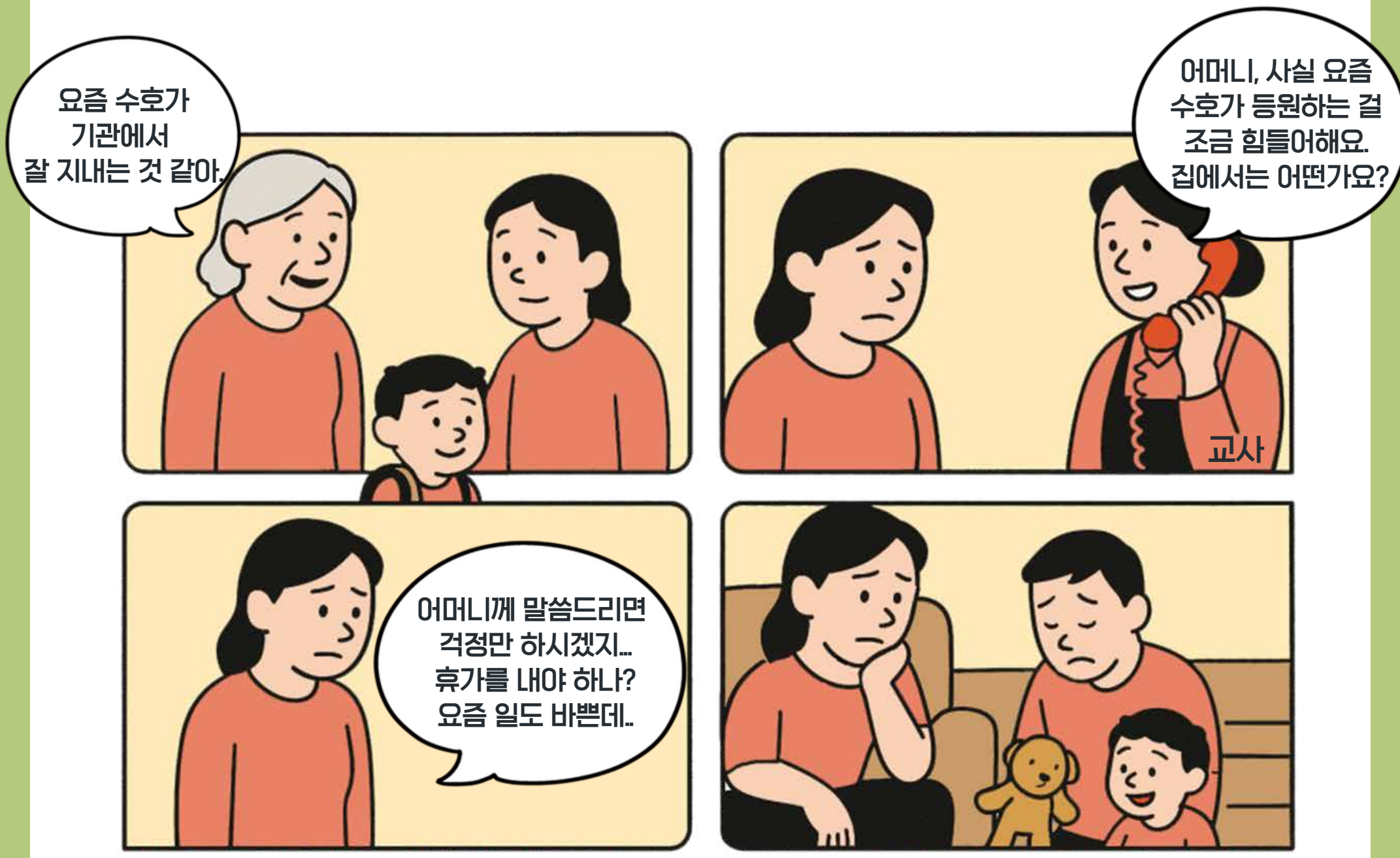
내 방식에 맞추기를 강요하는 것보다, 이해하려는 태도가 먼저예요.

"감사합니다. 그런데 이런 점도 함께 해볼 수 있을까요?"

이렇게 말해보세요.

감사의 말 한 마디가, 차이를 조율하는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.

2. 아이의 일상을 연결하기



2. 아이의 일상을 연결하기



조부모님도
중요한 **양육 협력자**!

양육의 공백,
함께 채우기

작은 정보의 힘:
짧게 자주 소통하기

주목!

이제 조부모님을 양육 보조자가 아니라,
'함께 키우는 협력자'로 바라볼 때입니다.
조부모와 부모가 서로의 빈틈을 채워갈 때,
아이의 하루는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

그렇다면 어떻게 일상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?

중요한 결정은
함께 상의해 보세요.

아이의 하루를
함께 계획하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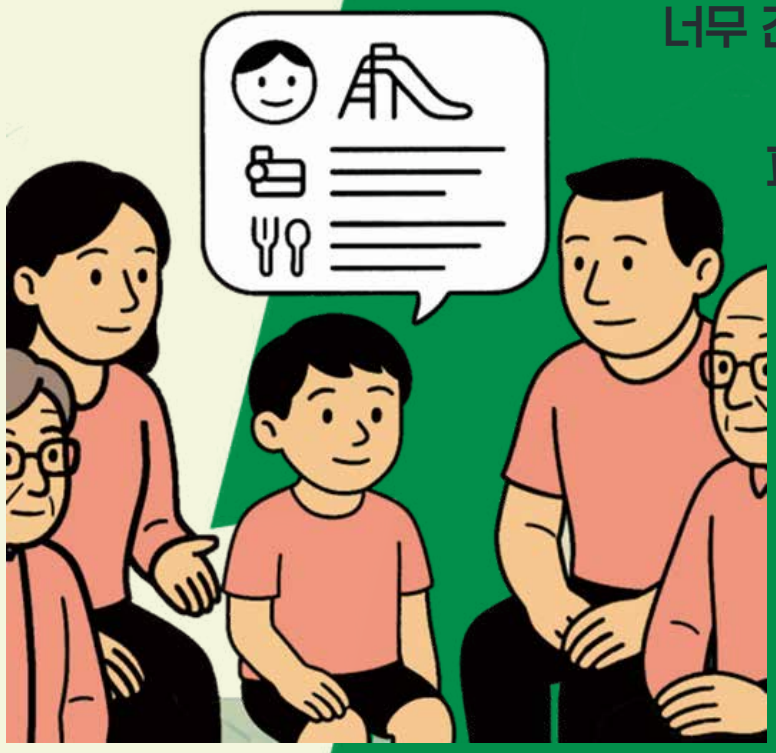
작은 정보도
자주 나눠보세요.

BALANCE GAME!

조부모님과 어디까지 공유하시나요?

A

아이의 하루는 빠짐없이
알려야 해요.
놀이부터 기분, 식사량까지
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.



B

조부모님 방식도 있으니
너무 간섭하면 불편하실까 봐…
일일이 보고하듯 말하면
피곤하고 부담스럽잖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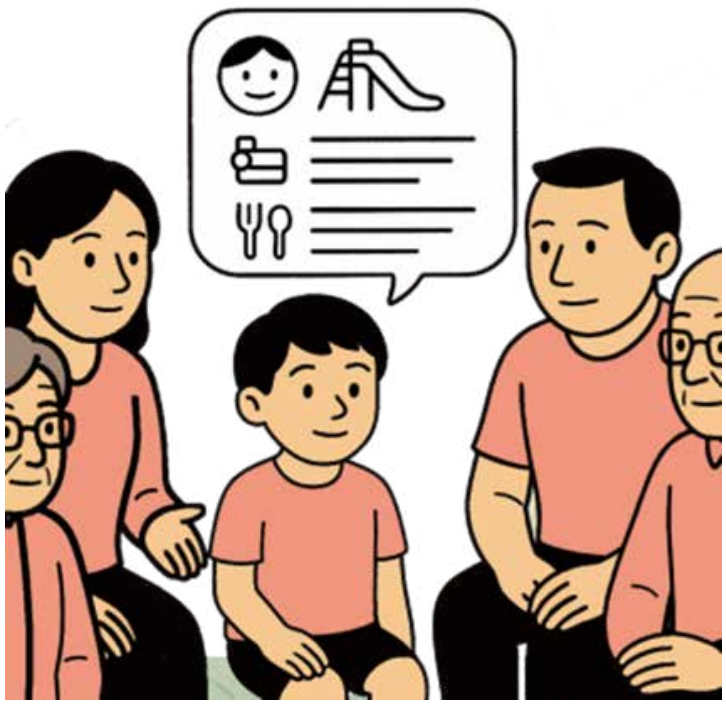
**아이에 대해
빠짐없이 공유한다.**

VS

**믿고 맡긴 이상,
너무 간섭하지 않는다.**

이제 밸런스 게임은 그만!

방식이 달라도 괜찮아요.



아이에 대한 정보를 다 나눌지, 조부모님께 자율권을 드릴지
어떤 선택이든 괜찮아요. 가족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.
하지만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,
매번 달라지지 않는 '**예상 가능한 기준**'이에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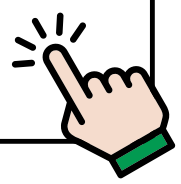
양육 방식에는 정답이 없지만,

아이의 하루는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해요.

중요한 양육 방식은 서로 미리 이야기해 보세요.

그 작은 조율이, 아이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.

다양한 양육자와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요?
다음 편에서 함께 살펴보아요.




교육부

대구광역시교육청

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